

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showing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1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1 program schedule from 05:00 to 09:20.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 from 00:00 to 12:15.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 from 07:00 to 15:20.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2일 (음 5월 7일 己巳)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text for each day.

‘님아, 그 강을 ...’ LA영화제 다큐 부문 대상

해남 출신 진모영 감독 “해의 공감 기쁘다”

해남 출신인 진모영 감독이 제작한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독의 ‘10분’(극영화 부문)에 이어 세 번째로, 경쟁 부문에서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영화는 76년 평생을 사랑해도 부족한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과 이별 이야기로, 지난해 11월 개봉해 국내에서 480만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

“새 음반 낼 수 있었던 건 ‘열정’ 팬들 덕분”

혜은이, 데뷔 40년 맞아 ‘프리 리스닝’ 발표 다음달엔 뮤지컬 ‘사랑해 톤즈’ 도전

1970년대 혜은이(본명 김승주·59·사진)에겐 여러 수석어가 있었다. TV 쇼 출연으로 단박에 똥고 ‘신데렐라’, 상을 받을 때마다 운다고 ‘수도꼭지’, 아담한 체구라며 ‘트랜지스터 걸’이라 불렀다.



그런 ‘사랑해 톤즈’에 출연한다. 혜은이는 톤즈에서 이태석 신부를 도운 막달레나 수녀 역할을 맡았다. 유독 여성 팬들이 많아 언니 부대를 이끌며 한 장의 앨범에서 여러 곡을 히트시켰다.

치열하고 숨막히는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용산참사’ 사건을 모티브 한 영화 ‘소수의견’ ... 24일 개봉



연가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화 ‘소수의견’(감독 김성태) 속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도, 이면적으로도 간단하지 않다. 사건 당사자인 철거민과 의경부터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기자, 국회의원, 용역업체 회장과 직원, 시민단체 사람까지 수많은 인물이 등장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저마다 힘겨루기를 벌인다.

연가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영화 ‘소수의견’(감독 김성태) 속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도, 이면적으로도 간단하지 않다. 사건 당사자인 철거민과 의경부터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관, 기자, 국회의원, 용역업체 회장과 직원, 시민단체 사람까지 수많은 인물이 등장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저마다 힘겨루기를 벌인다.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专线” ☎010-9790-8237